



22110163



**KOREAN A1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A1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A1 – NIVEL MEDIO – PRUEBA 1**

Wednesday 11 May 2011 (morning)

Mercredi 11 mai 2011 (matin)

Miércoles 11 de mayo de 2011 (mañana)

1 hour 30 minutes / 1 heure 30 minutes / 1 hora 30 minutos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It is not compulsory for you to respond directly to the guiding questions provided. However, you may use them if you wish.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 comment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Le commentaire ne doit pas nécessairement répondre aux questions d'orientation fournies. Vous pouvez toutefois les utiliser si vous le désirez.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comentario sobre un solo fragmento. No es obligatorio responder directamente a las preguntas que se ofrecen a modo de guía. Sin embargo, puede usarlas si lo desea.

다음 중 하나를 골라 해설하시오.

1.

**휴대전화 좀 빌려 주실래요?**

자연으로 돌아가겠다. 문명의 이기를 거부하겠다는 무슨 투철한 신념에서가 아니라 순전히 생활상의 편의에서 나는 그것들을 포기했다.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띠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연결해주는 이동통신 때문에 마지못해 접촉하는 번거로움이 여러 차례 반복된 뒤 나는 휴대전화를 없앴다. 나는 분초를 다투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주 연락하는 친구도 드물다. 벨이 울려 나와 아무 관계 없는 광고를 받는 고역을 치르고 나면 참을 수 없이 기분이 구겨져 내 언젠가 너를 버리리라. 별렀었다. 아무리 정보화 시대라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거부할 권리가, 원하지 않는 타인들과의 소통을 거부할 권리가 내게 있지 않을까.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몸에 해롭다는 보도를 접한 뒤에 나는 결심했다. 녹음된 전언을 듣는 용도로만 쓰던 일방통행용 도구를 없앴다고 당장 아쉬울 게 없었고, 다달이 내는 통신요금을 절약하면 맛있는 음식이나 음악으로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게 내 계산이었다.

내가 원해서 이동통신을 멀리한 얼마 뒤에, 최근에 우리집 컴퓨터에 이상이 생겨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터넷 연결이 끊겼다. 접속불량을 알면서도 노트북을 열면 습관적으로 바탕화면에서 낯익은 아이콘을 눌러대는 검지손가락을 보다 못해, 어느 날 마침내 용기를 내어 ‘인터넷 탐사기’를 휴지통에 버리고 노트북으로 들어가는 선을 떼어냈다.

그리고 나는 우리 동네의 PC방을 드나들었다. 그곳의 컴퓨터가 정보처리 속도도 빠르고 안전하며 이용료도 저렴했다. 실내가 어둡고 공기가 탁하다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나처럼 일주일에 한두 번 전자우편함을 열어보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딱, 안성맞춤이었다.

네모난 상자 속에 총천연색이 명멸하고, 그 앞에 앉은 사람의 얼굴도 나이도 성별도 분간할 수 없이 캄캄하다. 밖은 대낮인데...

“왜 이렇게 어두워요?”

나의 쉬운 질문에 PC방의 관리자인 남자는 “현대인은 혼자 게임에 몰두하기 위해 밀폐된 공간과 어둠을 선호한다”는 무지 어렵고 철학적인 답변으로 나를 놀래켰다. 내가 작가인 줄 알고 일부러 문자를 썼나? 금연구역이라고 써 붙였는데도 아랑곳 않고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을 피해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 맘에 드는 자리를 발견했다. 어둡기는 마찬가지지만 앞뒤가 트이고 공기가 비교적 청정했다.

가끔 휴대전화가 아쉽다. 옛날에는 삼십 분쯤 늦는 건 큰일이 아니었는데, 휴대전화가 보편화된 지금은 십 분만 늦어도 늦는다고 미리 알려줘야 한다. 상대를 무시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약속시간에 맞추지 못하면 서울로 행차하는 버스에서 전철에서 나는 좌불안석 초조하다. 급하면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옆자리의 승객에게 말을 붙인다. “저- 죄송하지만 휴대전화 좀 빌려주실래요? 제가 요금 드릴게요.”

내가 늘 성공했을까? 나의 뻔뻔스런 청탁은 (독자 여러분의 예상과 어긋나게) 여태 한 번도 거절당한 적이 없다. 언제나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다. 내게 기꺼이 자신의 단말기를 건넸던 그들 중 누구도 내가 내미는 동전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물론 눈치 없이 아무한테나 손을 벌리지는 않았다. 내 부탁을 거절하지 않을 승객, 인상 좋은 젊은 언니만 골랐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팔자에 없는 동냥이 즐겁지는 않아, 타인의 체취가 배인 미지근한 기계를 내 귀에 대는 일이 꺼림칙해 요즘 나는 분명한 용건이 없으면 외출을 삼가고, 시간이 정해진 약속 자체를 꺼린다.

- 40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속박되어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오롯이 내 것이 된 하루하루를 얼마나 생산적으로 활용했는지? 부끄럽다. 약간의 불편과 잡음은 있었으나 큰 탈 없이 한 해를 보냈다는 데 그나마 위안을 삼아야겠다. 오늘까지 저를 살려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최영미 산문집 <우연히 내 일기를 엿보게 될 사람에게> (중앙일보, 2003년)

- 이 글에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 논하시오.
-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이 글의 언어와 문체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논하시오.
- 이 글에서 작가는 이 글의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2.

촛불

촛불!  
심지에 불을 붙이면  
그 때부터 종말을 향해  
출발하는 것이다.

5 어두움을 밀어 내는  
그 연약한 저항  
누구의 정신을 배운  
조용한 희생일까

존재할 때  
10 미리 마련되어 있는  
시간의 국한을  
모르고 있어  
운명이다.

한정된 시간을  
15 불태워 가도  
슬퍼하지 않고  
순간을 꽃으로 향유하며  
춤추는 촛불.

황금찬 <창조문예사> (2007)

- 이 시에 주제에 대해 논하시오.
- 이 시의 대상에 대한 시인의 태도는 어떠한가?
- 이 시에서 사용된 문학적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